

경제정책동향

김기희 /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최근 대전경제 동향

2007년 2/4분기 대전지역의 경기는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경기하강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들어 다시 상승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2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회복의 징후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체의 7월 업황전망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8월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물부문에서 산업활동은 2007년 1/4분기는 생산,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07년 2/4분기 들어 생산 및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등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종에서도 지난 1/4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소비는 대형마트는 판매호조를 보인 반면 전문점과 백화점등은 하락세를 보였고 농산물소비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5월 중 시중은행 수신 및

여신 모두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수신은 대출확대, 기준자금 선확보 등을 위한 CD 및 은행채 발행 증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7월 국고채 등 채권리리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경쟁 우려감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어음부도금액 및 어음부도율도 최근 모두 하락였고, 예금은행 산업대출비중도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은 최근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부문에서는 수출은 지난 5월까지 연속 하락했으나 6월 들어 일본, 유로지역, 중국 등의 견조한 해외수요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도 6월 들어 전년대비 국제유가의 상대적 안정과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수출증가율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수출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로 흑자를 보였다

고용사정은 최근 취업자는 경기회복세, 기

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동기보다 증가하였다. 제조업분야에서는 최근 양호한 산업활동, 서비스업은 소비 및 내수회복이 취업자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실업률은 최근 거듭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6월 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 중 장맛비와 부더위 영향으로 산지출하가 감소한 과채류 등 농산물, 석유류 제품이 오른 공업제품, 상수도료, 도시가스 등이 오른 공공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단체여행비(해외), 닭튀김 등이 오른 개인서비스 부문의 영향으로 전월비 0.7%, 전년동월비 2.7% 상승하였다. 전월비 소비자물가지수는 7대 주요도시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월비 0.7%, 전년도 우월비 3.6% 각각 상승하였다.

2007년 2/4분기 대전의 경제는 물가, 실업률 등에서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나 산업활동에서 활기를 찾는 모습이며, 소비, 금융, 대외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경기도 2개월 연속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이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당초 예상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아울러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

가는 한편, 해외여건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 「로봇랜드」 유치 신청

정부의 로봇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모두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간 시합을 건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로봇랜드 사업의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신청서 마감 결과, 대전을 비롯하여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남·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등 11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했다.

정부의 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로봇 상설전시관, 로봇체험관, 로봇 놀이기구, 전용 로봇경기장, 상설 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로봇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 지자체는 건설사 등 민간업체를 비롯해 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산자부는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민간업체와 이들의 투자비 집행 규모(국비, 지자체 예산, 민간 투자), 부지 규모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산업자원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150~200명에 달하는 전문가 그룹을 비공개로 모집하고, 이 가운데 다시 전문가를 선정해 로봇랜

드 추천위원회와 산업발전심의회를 구성한 다음 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쳐 1개의 예비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후,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조사(KDI)를 실시해 내년 2월까지 최종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로봇랜드 유치를 신청한 대전광역시와 로봇랜드 대전 유치를 위해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를 방문해 로봇랜드 대전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계기로 충청권경제협의회를 만들어 가는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봇과 연계된 기업이 충·남북을 연계하면 300개에 이르며, 충·남북의 전략사업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랜드를 유치하게 되면, 향후 충청권의 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